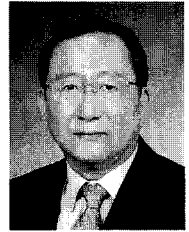


협회장 동정

제10차 이사회 개최

지난 12월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08년도 사업결산 및 고환율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정호 회장

긴급 이사간담회 개최

지난 12월 12일 긴급 이사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동성자금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태국 타피오카 무역협회 회장단 일행 예방 접견

지난해 11월 27일 각 팀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태국 타피오카 무역협회 회장단 일행 20여명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의 사료산업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제9차 이사회 개최

지난해 11월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9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국제 사료원료 수급 및 가격동향을 분석하고 환율급등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모색했다.

‘2008 카길에그리퓨리나 축산·사료 연구기술 대상’ 시상식 참석

본회 사료기술연구소는 지난 12월 16일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개최된 재단법인 카길에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이 시상하는 ‘2008 카길에그리퓨리나 축산·사료 연구기술 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날 김정호 회장은 시상식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업계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눴다.

협회동정

‘불우이웃에게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 성금 전달

본회는 지난 12월 4일 대한양돈협회와 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불우이웃에게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 운동에 동참키 위해 양돈협회를 방문하여 성금 1백만원을 기탁했다.(사진 왼쪽부터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 본회 이한필 전무이사)



임직원 추계 체력단련 등반대회

본회 임직원은 지난해 11월 1일 임직원들의 화합과 체력단련을 위해 북한산 등반대회를 가졌다. 이날 임직원들은 사료업체가 고곡가·고환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협회차원에서의 대회원사 서비스를 위한 재충전의 자리를 가졌다.



자매결연마을 응암리 일손돕기



본회는 지난해 11월 7일 자매결연마을인 강원도 평창군 응암마을(이장 지준집)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협회는 이날 고추대 뽑기와 고추밭 정리작업, 벧짚 나르기 등 일손이 모자라는 응암 마을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농사일을 도왔다.

파레스바이오피드(주)

사무소 이전

파레스바이오피드(주)의 사무소가 지난 10월 24일 다음과 같이 이전됐다.

-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364-6(파레스바이오피드 (주) 화성공장)
- △ 전화 : (031)351-7321(대표)
- △ 팩스 : (031)351-7323

대상팜스코(주)

구매팀 이전

대상팜스코(주)의 구매팀이 지난 10월 27일 다음과 같이 이전됐다.

-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39-1(스타우드빌딩 601호)

(주)트루라이프 · 서부사료(주)

계양산에서 계란소비촉진 캠페인 등 전개



(주)트루라이프 · 서부사료(주)는 지난해 11월 8일 계양산 추계산행에서 ‘사랑의 계란 나눠주기’ 캠페인 및 신제품 ‘오늘아침 레뜨레 두뇌플러스’ 샘플링을 펼쳤다. 계란소비촉진 캠페인은 (주)트루라이프 · 서부사료(주)가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한 나눔 활동의 일환이자 대한민국 대표 계란사랑 운동. 이날 트루라이프의 웰빙파트너가 계란홍보 도우미로 나서 등산객

들에게 구운 계란을 무료로 나눠주고 계란의 영양 가치를 적극 홍보했다.

또한 이후 신제품 유기농 수제 요구르트 ‘오늘아침 레뜨레 두뇌플러스’ 고객 샘플링이 이어져 1천여 명의 등산객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캠페인 후 임직원들의 심신단련과 상호 친목조성을 위해 임직원 웰빙파트너 및 운송기사 150여명과 함께 계양산 정상을 등반했다. 이번 산행에는 정상에서 관제업서에 지인들에게 편지를 적어 보내는 ‘사랑은 엽서를 타고’와 산행중 직원들의 재미있는 순간을 플라로이드에 담은 ‘깜짝? 찰칵!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정세진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산행은 전 구성원과 시민 모두에게 즐겁고 뜻 깊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고객 성원에 보답하는 나눔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우성사료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우전문경영인 포럼’ 개최



(주)우성사료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우전문경영인 포럼’을 개최하였다. 지난 12월 11일 대전에 소재한 DCC(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한우경영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행사는 한우산업의 위기를 반영하듯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열기가 뜨거웠다.

초청강사로 나선 일본의 히다리 히사시 박사(일본 오비히로 축산대학)는 일본과 한국은 자급사료 자원이 부족한 현실이 같고, 화우(흑모화종)나 한우는 고급육을 만들기에 적합한 산유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고급육 생산에 힘써 수입육과 경쟁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우성사료의 고급육 전용사료인 ‘더한우마루’를 급여한 2개의 브랜드 경영체를 비롯한

11개 한우농가의 2년간 출하한 총 1,638두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1+이상 등급 60.5%로 전국 평균 41.8%보다 145%, 18.7퍼센트 포인트가 높았으며, 지육중량은 전국 평균보다 10kg이 높은 414.7kg을 기록하여 결과적으로 두당 44만원 이상의 추가수익을 올린 셈이다.

함께 소개된 서산의 H농장의 경우 208두를 출하하여 1등급 이상 97%, 1+등급 이상 72%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참석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손근남 이사(축우PM)는 2009년 한우산업의 전망과 과제에 대하여 2009년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우경영인 개별로는 생산성 향상과 낭비요소를 없애고, 소지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소고기를 생산하여 공급하여야 함은 물론, 전체적으로는 한우산업의 파이를 키우는 일에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우의 웰빙 먹거리 더한우마루

친환경 웰빙 한우 고급육 전용사료 ‘더한우마루’는 모든 라인을 무항생제로 생산하고 있다. ‘더한우마루’는 지방세포의 분화를 위해 보호 비타민 C를 특수 처방하였으며, 유백색의 고급지방 침착을 위해 마무리가 숙성제품에는 보리를 기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유기태 크롬과 코발트 등 면역력 강화를 위한 종합처방을 한 제품으로 28개월령 출하체중 720kg대에 1+ 이상 등급 2/3를 목표로 일본의 화우와 필적할 최상품의 쇠고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고급육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